

노 대통령, '대덕연구단지 R&D 특구 지정'

대덕연구단지 R&D특구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립중앙과학관 강당에서 열린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필요하다면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지역을 R&D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지정에 필요한 법률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는 우수한 과학기술 두뇌를 양성하는 산실이자 전국의 연구개발 인재를 흡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집적지 역할을 훌륭히 해왔다"면서 "이제는 2만불 시대를 여는 선도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외국의 우수 연구소와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덕의 불빛이 밤을 밝힐때 대전 충청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며 2만불 시대도 환하게 밝아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연구단지가 세계적인 R&D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연구소와 대학, 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 연구개발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과학기술중심사회,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문을 낭독한 후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과학기술분야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과학자들이 숨은 공로자가 아닌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데 공개되고 앞장설 수 있는 공로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의 연설 도중 'R&D특구 지정'과 '2만불 시대의 주역이 되어달라'는 발언에서 모두 박수로 화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중기 LG화학기술연구원장에게 과학기술 훈장 응비장을, 이경수 지니텍 이사와 윤 박 기계연구원 행정부장에게 각각 과학기술포장을, 대덕넷 이석봉 대표와 에너지기술연구원 유정경 홍보협력실장, KAIST 권태환 홍보협력팀장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김시중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황해웅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과학자, 벤처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신제품 · 신기술 ■

캔두,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코젯' 출시

대덕밸리 기계제조 전문업체 캔두(대표 김을중)는 3년여 개발과정을 통해 산업용 고속 잉크젯 프린터 '코젯(Kojet)'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초당 2100자 이상 고속으로 활자를 찍어낼 수 있으며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접촉식 프린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 수입제품들은 접촉식 프린팅 방식으로 속도가 느리고 인쇄 과정에서 제품손상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김을중 대표는 "이번 제품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국산화시켜 연간 2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제품생산 단계부터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 상품을 출고하는 단계까지 전체 생산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주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